

“‘국기원 전주’ 철회하라”

(전주시의회 이전 촉구 건의안)

무주군의회, TV 공개 토론 제안 성명서 발표... “몰염치한 정치 행태”

무주군의회(의장 유 송열)는 5일 제 260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의회의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TV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시의회가 채택한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할 폐기안 일 뿐이다”며 “명분과 이유도 없고 실현 가능성 검토나 전주시민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지방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은 아닌지 그 저의가 불분하고 의심스러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몰염치한 정치 행태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전주시의회의 주장은 국론 분열과 전북도민 간의 갈등만 양산하는 뒷북치기의 전형이며 태권도에 깃들어 있는 고유의 정신과 가치, 혼은 무



무주군의회는 5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의회의 국기원 전주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TV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하고 오로지 상업적인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것으로 전주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촉구하고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의회와 무주군의회와의 TV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정치 도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올해 설날 선물은 우리 진안 특산물로”

진안군 일부 기관·업체, 작년 명절 때 타지 상품 구입... 인식 전환 여론

진안군 일부 기관장과 기업체 대표들이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다른 지역 특산물을 구매해 비난을 샀었다.

따라서 이번 설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명절 선물로 이용, 지역 농가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일부 기관·기업체 대표들은 전주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양주 등 다른 지역 특산물을 구입해 선물

해 지역사랑이 아쉬운 실정이다. 현재 진안지역에는 홍삼, 수삼, 백삼을 비롯한 인삼 종류와 표고, 사과, 배, 토마토, 더덕, 벌꿀 등 가격대 별로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설과 추석에 모 기관장은 B양주에서 생산되는 술을 선물했으며 한 기업체 대표는 인근지역 사과를 선물해 빈축을 샀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연중 수차례 서

술, 전주 등 대도시에서 ‘내 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김모씨(51, 진안읍)는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들이 지역산품을 애용하는 것은 기본이다”며 “이번 설에는 말 보다는 행동으로 지역특산물 애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내년 국가예산 3000억원 목표

총 111건 국도비 5140억원 규모의 사업 발굴

장수군이 5일 최용득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비 확보를 위한 부서별 국가예산 확보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추가로 발굴된 23건 645억원 규모 사업의 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국비 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그간 발굴한 사업에 대한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4

차례 걸쳐 신규사업 보고회를 실시, 총111건 국도비 5,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3,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

군은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대 주요사업을 선정, 국비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수군 10대 중점사업으로는 ▲장수기아(봉수·철의왕국) 역사문화단

지 조성 ▲장수군 농산물 직거래 경매장 조성 ▲장수~진안간 국도(26호선) 개량 ▲반암면사무소앞 국도 19호선 선형개량 ▲장수기아 로하스 힐링투어패스 구축 ▲장수사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말산읍 특구지정 ▲장안산 생태경관 보전 및 생태관광 추진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악정원 ▲장수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이며, 국도비 총2,60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최용득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신속히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의원과 출향 공무원과 공조 대응해 국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물’ 설맞이 온라인 이벤트

8일까지 장수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신청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이 2018년 설명절을 맞아 온라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벤트 응모방법은 장수물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장수물을 홍보하거나 장수물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군은 총 18명을 대상으로 사과, 오미자청, 사과즙 등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행사 기간 동안 장수물을 이용,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장수군 농가들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연 ‘장수물’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농가소득과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설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무주군은 5일 안성면 장날을 맞아 덕유산정터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과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무주군지부, 소비자개발센터, 시장상인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며 온누리 상품권 이용과 물가안정 관련 캠페인을 펼쳤다. 황정수 군수는 상인들을 만나 “날씨가

가 많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라며 “안성 장에 오면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인들은 “올해는 장이 좀 북적북적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며 “좋은 물건 착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6일에는 무주읍 반딧불정터에서도 장보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무주군농협과 우체국, 전북은행, 신한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3월24일까지 완료해야

진안군은 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을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 하여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소·젓소 500㎡이상, 닭·오리·메추리 1,000㎡이상, 양·사슴·개 200㎡이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 신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 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다. 10건은 인허가 접수 중이며, 68건은 측량 및 설계 중이고 미추진이 12건이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 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용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추진

장수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4천만원을 들여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 ▲상·하수도시설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옥상방수 등이다.

지원기준은 노후 및 열세 공동주택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단지별 총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총 2개 단지를 지원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남 무안군청, 진안군

마을만들기 선진지 방문

전남 무안군 11개 마을 주민과 공무원 등 120여 명이 5일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을 방문했다.

무안군은 매년 2월이면 마을공동체의 시대적 배경과 중요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내용,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등 지역의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3년째 진안군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방문하여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 김경민 주무관의 강의를 통해 진안군 마을만들기 역사와 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 등 마을만들기의 전반적인 활동 사례를 들었다.

이어서 진안군 마을만들기 대표마을인 원연정마을의 10년 동안의 마을활동사례를 듣고, 마을로 이동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후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유행병 3팀으로 나뉘어 진안군 우수마을인 상전면 배넉마을, 백운면 두원마을, 진안읍 상가면마을을 방문하여 마을만들기 현장을 둘러봤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금융기관 협업체제 강화 추진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수사과(과장 정진만)는 5일 안성농협을 방문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무주서 정진만 수사과장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현금을 계좌이체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일체를 지시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사업과
063-430-2951